

이렇게도 저같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는 교회와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교육선언을 쓴 이유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미 두 학교에서 쓰기로 했고 교회에서도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은 교육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 안내서에 이대부속학교 신생남들이 직접 사용한 수업계획안들과 예시들을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캠프를 염두에 두고 30페이지 분량인 네 번의 설교와 네 번의 성경공부 자료를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마음이 있습니다.

**유경상 : 교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달하는 일, 즉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더 나아가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승 :**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공부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겠지만, 결국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각과 삶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부회의 주제입니다. 네덜란드와 북미주에서 이러한 교육을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공감하는 교회들이 기독교교육을 설립했기 때문에 목회와 교육에 일관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삶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과 구원된 사고와 삶 사이에 괴리를 가진 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전파된 기독교 세계관은 마치 영혼구원에 더해진 개념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임을 부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새 창조로 마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임을 실제 목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는 공부와 일, 인간관계와 놀이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기독교적인 꿈과 비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대담 및 정리) : 유경상 (대표) 기독교세계관학술회의 신학 청년세계관교육기반인 크리스찬생각센터 (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불학을 전공하고 MEB(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산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원신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말씀학교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며, 아세아연립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어린이용 세계관 교육 교재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

이해지 (이대부속중등학교 교사)

## 책의 취지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의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요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사에 의한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시간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시도가 무르익고 있다. 이는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성경 수업 시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나머지 시간은 성경과 관련 없이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원론적인 접근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런 맥락에서 출판된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인문학을 가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자의 말을 빌려 이 책의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교육선언』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구원된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로 고안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알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고 세상과 사회에 유의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본 교재의 목적이다. 어린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행하고 따라서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거나 그들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서술형식을 따라 해설하였다. 『기독교교육선언』교사가이드북에서

따라서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은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각하고, 경행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의 각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신인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삶의 주제에는 구속된 삶, 생명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에 관련한 것들도 포함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공부나 놀이, 그리고 미래 일과 직업 등에 대한 주제를 창조 · 타락 · 구속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것을 돕는다.

## 책의 구조

어린이용 기독교 세계관 책인 『기독교교육선언』은 어린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어린이용과 이 교재를 가지고 지도하는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교사 가이드북,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용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는 15개의 단원과 4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다시 창조, 타락과 구속, 회개, 소망의 네 개 주제로 묶여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창조와 타락, 구속은 앞부분에서 다루고, 이 책에서 많은 조항으로 할애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회개에 대한 것이다. 15개 단원을 주제에 따라 묶어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다.

1. 시작과 요약
2. 성경
3. 선한 창조
4. 죄로 망가진 세상
5.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약속
6.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7.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을 회복한다
8. 구속된 삶
9. 생명
10. 공동체
11. 학교와 교육
12. 일
13. 놀이
14. 소망
15. 마지막

교사가이드북에는 어린이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 에 대한 저자의 해설과 활용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앞부분은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 전반에 대한 해설을 비롯한 조항 별 세부적인 해설이다. 해설 부분에는 어린이용 책자에 실린 본문과 삽화를 그대로 실어 교사가 가이드북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 책자를 학교나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과 캠프 활동 계획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학교나 교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데, 활용의 예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기쁜별, 장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학교나 교회의 공과, 소그룹과 같이 수업 장면에서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안 형태의 안내서와 캠프 등과 같이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 선언』을 활용하는 교사는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다른 형태의 안내를 이 교사용 책자에서 받을 수 있다.

## 활용의 경원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은 초등학교 현장과 교회 여름 캠프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잠실교회 초등부 여름캠프에서는 본 교재의 캠프용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이 책자를 활용하였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응에는 공부하는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생각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롭고 놀라웠다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교학인인 4, 5, 6학년 교실에서 학년 초에 이 책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3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루는 만큼 학년마다 다루는 주요점을 달리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개의 전체 구조를 이해

하게 하고, 창조와 타락 중심으로 깊이 다루면서 우리 생활 전반이 회복될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5학년에서는 회복되는 실제 영역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다룬다. 6학년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회복되는 체험을 실제로 해보게 함으로써 내면화를 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나 놀이와 같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이 책으로 공부한 어린이들이 이해한 본문 내용을 담은 그림으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어린이용 교재에 수록된 삽화는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이 교재 본문을 공부한 학생들이 본문에 대해 이해한 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기독교교육선언』의 창조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체가 우리의 집(house)이 된다는 것으로, 타락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집(house)'인 이 세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흘은 빛, 하늘, 물과 육지라는 공간인 '집(house)'을 만드셨고, 다음 사흘은 각각의 공간을 해 · 달 · 별로, 하늘 생물로, 바다 생물 · 육지 생물 및 사람으로 채우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 사는 집을 가꾸고 지키듯 우리 인간이 사는 집으로서의 공간과 환경인 '집(house)'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회복되는 이 세상의 제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 인의 현재 상황 문제로 갖게 한다. 삽화 1은 그 내용을 학습한 학생이 이해한 창조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전 우주적인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삽화 2와 3도 이 책의 주요 정신을 아이들 수준에서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우리의 다양한 관계와 일과 직업 등이 예수님과 떨어뜨려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삽화 1



삽화 2



삽화 3

이와 같은 활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어린이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일관적으로 지도하는데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읽혀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전반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해지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로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아동발달과 교수(Ph. D.)을 전공하였다. 박사논문으로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2011)>가 있다.